

숲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숲에게 맡겨라

숲, 다시 보기를 권함

페터 블레벤 지음, 박여명 옮김

세계적 생태 작가이자 숲 해설가, 나무 통역사인 페터 블레벤은 "숲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숲에게 맡겨라"고 말한다. 그는 왜 그 같은 주장을 할까? 환경보호라는 인간의 개입이 오히려 숲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진단한다. 자연은 스스로 필요한 환경을 만들고 조절할 능력이 있는데 말이다.



숲은 가꾸고 다듬어야 할 '공원'이 아니라 스스로 환경을 만들고 조절할 능력을 갖춘 자연 그 자체다.

임업을 위한 보호와 관련이 있다. (독일은 임업에 수렵의 의미가 더해진다)

나무를 경제성과 효율성에 부합하는 자원, 다시 말해 상품으로 보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가꾸지 않거나 때를 놓친 나무는 자원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가치가 낮다는 것이다. 임업의 시각으로 본다면 나무는 언제가는 베어지게 될 운명을 맞는다.

숲은 여전히 '훼손되지 않은 원시 상태의 생태계'에 가깝다. 물과 공기, 생물의 다양성을 간직한 곳도 숲이다. 일상의 소음과 분주함도 숲에서는 찾을 수 없다. 그러나 숲의 뒤면에서는 무자비한 착취가 이루어지고 있다. 동물들은 가장자리로 밀려나고 있으며 나무는 체류 기간이 정해진 목재 원료로 전락했다.

저자는 목재로서 침엽수가 빠르게 인정을 받은 데는 수종 특성 때문이라고 부연한다. 햇빛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침엽수는 밀집도가 일조량에 상관없이 직선으로 자란다. 산림경영 측면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관리하기가 쉽다. 이에 비해 활엽수는 햇빛이 비추는 방향

으로 자라는 특성 탓에 줄기들이 구부러지고 얽힌다. 저자는 아울러 풍력발전과 바이오매스에 가린 민낯도 파헤친다. 대기오염 방지에 보탬이 되는 녹색 에너지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논리다. 풍력발전기를 세우고 목재 펄릿을 만들기 위해 나무를 베어 내는 과정에서 흙이 저장돼 있던 이산화탄소가 대규모로 배출되며 야생동물은 서식지를 잃는다. 녹색 에너지를 생산하기보다 에너지 절약에 나서는 게 이득이다.

인간이 개입하지 않고 자연 속에 내버려두면 순리에 따라 생태계가 보존된다. 그러나 인간이 개입하면서 숲은 질서, 생명, 공동체를 빼앗기고 훼손당했다. 숲은 자연이지 가꾸고 다듬어야 할 '공원'이 아니다.

오늘의 자연보호는 숲에 대한 배려없이 진행되는 데 문제가 있다. 유행에 따라 수종을 선택하고 문제가 생기면 개별이나 간벌을 하고, 그 자리에 또 식재를 한다. 생물종의 다양성은 사라지고 원에 사업의 관점에서만 생각한다. <다숲·1만8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소설이 주는 위안...팬데믹 시대 버텨내게 하는 29개의 이야기

데카메론 프로젝트

마거릿 애트우드 외 28인 지음

정해영 옮김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한 책이 몇 권 있다. 전염병이 번진 폐쇄도시를 배경으로 다양한 인간 세상의 모습을 그린 알베르 카뮈의 '페스트'가 대표적이다. 1353년 이탈리아 작가 조반니 보카치오가 쓴 '데카메론'도 수백년이 지나 다시 팔려나가기 시작했다. '데카메론'은 1348년, 2500만명의 목숨을 앗아간 흑사병이 피렌체를 황폐화시키고 있을 때 피렌체 외곽의 한 저택에 피신한 10명의 남녀가 서로를 위해 들려주는 100편의 이야기를 담은 액자소설 형태의 책이다.

코로나가 확산되던 시절, '뉴욕타임스'는 소설가 리브카 갈첸으로부터 "독자들이 현재 순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데카메론' 리뷰를 쓰고 싶다"는 제안

을 받았다. 편집부는 여기서 기획을 발전시켜 유명작가들이 격리 중에 쓴 단편 소설을 모아 '우리 시대의 데카메론을 만들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했다. 당대 최고의 작가들이 쓴 새로운 소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기억하고 이해하는 데 어떤 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궁금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물이 마거릿 애트우드 등 29명의 작가가 쓴 '데카메론 프로젝트-팬데믹 시대를 건너는 29개의 이야기'다. '삶의 가장 무서운 경험 중 하나에 깊이 빠져들었던 순간에 쓰여진 소설'은 신문에 연재될 당시 독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고, 소설이 준 위안에 대해 감사의 메일도 편집국으로 전해졌다.

리브카 갈첸은 들어가는 글 '생명을 구하는 이야기들'을 통해 '데카메론'에 대한 내용과 함께 "어려운 시기에 소설을 읽는 것은 그 시기를 이해하는 방식이자 그 시기를 끈기있게 버텨내는 방식이기도 하다"고 이야기한다. 그의 말처럼 고립된 시간, 제한된 공간에서 펼쳐진 이야기는 멋진 상상력으로 가득하고 고통을 말하며 더불어 희망을 전한다.

해마다 노벨상 후보에 오르는 '시너 이야기'의 마거릿 애트우드의 작품 '침울성 없는 그리젤다'는 격리 중인 지구인들을 돕기 위해 행성간 원조 패키지 일환으로 지구에 온, 문어 모습의 외계인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담은 SF 소설이다. 캐나다 출신 소설가 모나 아와드의 '이처럼 푸른 하늘'은 마흔번째 생일을 맞은 한 여자가 '힘든 한 해를 보내셨군요, 안 그런가요?'라고 묻는 고급 스파의 종업원에게서 나쁜 기억을 지워주는 실험적인 치료를 받으며 펼쳐지는 이야기다.

또 존 레이는 사람들이 애완동물을 산책시키는 척하면서 동행금지령을 교묘히 피하도록 개를 대어해주는 한 남자애 대한 이야기를 담은 '열린 도시 바르셀로나'를 선보이며 '브루클린'의 작가 콜럼 토티는 작품 'LA강 이야기'를 통해 중년의 소설가가 붕괴된 상황에서 자신의 일상을 어떻게 유지하고 지키려하는 지 보여준다.

그밖에 라일라 팔라미의 '내 남동생의 결혼식', 마이쿠토의 '진정한 강도' 등 서로 다른 상상력과 통찰로 그려낸 소설을 만날 수 있다. <인플루엔셜·1만65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타인의 집=아몬드'를 쓴 손원평의 첫 소설집으로 작가가 소설을 쓰기 시작하며 가장 먼저 천착한 고민들이 오롯이 담겼다. 전셋집의 불법 월세 세어하우스를 배경으로 부동산 계급 구조를 쓸쓸한 촌극으로 풀어낸 표제작 '타인의 집', '아몬드' 외전 격인 소설 '상자 속의 남자' 등을 비롯해 '4월의 남자', '열리지 않은 책방' 등 여덟 편을 만날 수 있다. <창비·1만4000원>



▲이기적 몬스터=유전학 박사이자 과학 저술가인 캣 아니는 세포분열을 하는 "다세포 생물이라면 암은 피할 수 없는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인간뿐 아니라 반려견, 새조개, 개구리, 심지어 히드라까지 대부분의 생물에게서 암이 발병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암을 극복하기 위해선 암을 '정복'의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암의 진화적 성격을 치료에 활용해야 한다고 전한다. <현암사·2만원>



▲파리에서 도시락을 파는 여자=유럽 11개국 1200개 매장, 연 매출 5400억원의 글로벌 기업 켈리델리(KellyDeli)의 창업자 켈리 최의 성공 스토리를 소개한다. 저자는 후배에게 커피 한 잔 사줄 수 없을 정도로 가난했던 시절부터 파리의 성공한 사업가가 되기까지, 모든 시행착오와 그 과정에서 깨닫게 된 인생의 비밀

을 7가지 법칙으로 정리해 이 책에 담았다. <다산북스·1만6000원>

▲일본이 선진국이라는 착각=일본을 막연히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우리의 편견이며, 어쩌면 일본이 정체가 되고 보를 거듭하고 있는지를 알려준다. 수년 동안 일본 특파원으로 활약해온 SBS 유명 수기자라는 메이저유신 시대의 질서가 제대로 쇠신되지 못하면서 일본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음을 다양한 사례와 분석을 통해 보여준다. <휴머니스트·1만7000원>

어린이·청소년 책



▲와일드 심포니='다빈치 코드'로 유명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 댄 브라운의 첫 그림책이다. 평범한 교사 출신으로 음악과 어린이를 사랑하는 브라운이 20대 중반에 직접 제작했던 어린이 음악 앨범을 바탕으로 썼으며, 지휘자 생쥐를 중심으로 새, 캥거루, 고양이 등 스무 종의 동물이 다양한 곡을 연주하며 암초처럼 숨겨진 비밀을 들려준다. QR코드를 스캔하면 브라운이 직접 작곡한 21개의 클래식 연주곡을 들을 수 있다. <바우솔·1만5000원>

박정음, 누구보다 마음이 여린 오솔아, 자신감이 넘치면서도 반항심을 품은 강휘. 세 사람이 저마다 마음속에 담긴 폭풍을 감당하며 여름 동안 자전거를 배우고 타는 과정이 감동적으로 펼쳐진다. <창비·1만8000원>

▲내 기본은 여름이야=사춘기 어린이의 모습을 수채화처럼 담아낸 변선아 작가의 장편동화로 여름 소나기처럼 청량한 성장 드라마다. 내면의 슬픔을 견디는

▲추거니 받거니 공 이야기=혼자서도 재미있고, 여럿이면 더 재미있는 공놀이.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공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공의 모양과 재료 그리고 공을 다루는 방법도 끊임없이 발전했다. 저자 소피 보르데페티옹은 공보다 가벼운 풍선부터 축구 경기에서 사용하는 축구공까지 오랜 옛날부터 주고받은 다양한 공과 재미있는 공놀이를 감각적인 그림과 간결한 글로 담아냈다. <씨드북·1만2000원>

이제는 내일에 투자합니다!

**최소금액 500만원 투자로
안정적인 재테크**

**내일을 위한 보험! 안정적인 고수의 투자!
투자만으로 수목장 자연장지를 선분양**

은행이자

갈수록 떨어지는 금리
이제는 마이너스 금리시대
평균 31~51만원

부동산 투자

수요와 공급의 역전
텅텅 비어버린 부동산들
평균 30~50만원
(임대되었을시)

친환경장묘문화(주)투자

안전성 보장
실제 운영하는 수목장의
장원장지를 분양도 받고
수익까지 창출하는
미래형 재테크

친환경장묘문화(주) ☎ 062) 412-2800